

창간호 2016년 2월

대자연사랑

The Nature Love

자연과 조화되는 삶
자연과 인간은 하나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국제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한국 지부로
2011년 3월 환경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구촌 실현을 위해
생명존중과 자연사랑을 실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발행정보 | 통권 제1호
발행일 | 2016년 2월 28일
발행인 | 변정환
편집인 | 이광조
발행처 |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32-11
연락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A-1805
전화 | 02-732-1359
팩스 | 02-732-1357
홈페이지 | <http://the-inla.or.kr>
이메일 | inlakorea@daum.net
디자인 | 티팩토리
인쇄 | (주)아이앤피



콩잉크와 재생지로
제작되었습니다.



08
12



26



34

- 이사장 인사말**
- 04 대자연사랑 잡지 창간에 즈음하여 가족에게 띄우는 편지
- 05 **법인소개**
- 대자연문화**
- 08 '2014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 다시보기
- 12 자연의 소리로 마음을 감싸는 '대자연사랑콘서트'
- 16 음악으로 전하는 자연 힐링, 대자연 음악
- 18 자연과 친해져요 '대자연 행복체조'
- 대자연칼럼**
- 22 낙동강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환경실천운동
- 26 채식약선(藥膳)을 아십니까?
- 지부포커스**
- 34 경기지부
- 36 대구지부
대구한대학교 대학생 동아리 '자연사랑'
- 대자연 파트너**
- 40 '더불어 함께 만드는 좋은 공동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 기획연재**
- 42 웃음꽃 사람
심화숙 회원의 자연을 닮은 다도봉사
- News**
- 44 지부소식·인물동정
- 46 회원알림
- 편집후기**
- 48 창간호 워크샵 현장



이사장 변정환

대구한의대학교 설립인
현)대구한의대학교 명예총장
현)제한한의원 원장

대자연사랑 잡지 창간에 즈음하여 가족에게 띄우는 편지

대자연사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 지부를 통해 지역 사회 곳곳에서 대자연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대자연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 여러분의 뜻과 열정으로 환경을 돌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자연사랑’이 온누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도시문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류는 물질문명의 수혜자가 된 동시에 열대우림의 파괴, 지구자원의 고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정서와 건강이 고려되지 않은 비환경적인 생활조건은 사람의 순수하고 자연적인 품성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류와 더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과의 공존, 세계는 하나라는 인식의 장을 넓히는 일부터 시작해야하며, 스스로의 안전한 삶과 미래세대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지켜야 할 엄중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내외의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환경보호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자연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환경, 봉사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2011년 3월 환경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후, 그동안 11개 지부, 2,0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자연사랑’ 잡지의 발간으로 법인의 설립 이념인 ‘자연사랑, 생명존중, 인간사랑, 지구사랑’을 토대로 하는 실천과 문화를 소개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다 같이 이해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하나된 지구촌’을 만드는데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대자연사랑실천본부 이사장 변정환



Vision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세상’



Mission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교육, 학술, 문화, 봉사를 통해
생명존중, 자연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진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 생명존중, 자연사랑에 대한 학술활동 및 정책연구

- 조상들의 대자연사랑 문화 연구
-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방안 '그린라이프' 연구
- 대자연사랑 학술 세미나 개최

3. 자연과 함께하는 봉사 및 홍보

-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사업
- 친환경 채식문화 홍보
- 자연사랑 캠페인

5. 대자연사랑 나눔 사업

- 전국 '대자연사랑 봉사단' 운영

2. 대자연사랑 교육

- 대자연교육센터 설립
- 녹색환경교실 운영
- 자연탐방/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대자연캠프 운영

4. 대자연사랑 문화활동

- 대자연사랑 도서 및 음악 제작
- 대자연행복체조 개발
- 대자연사랑축제 개최

2008 · 창립 발기인 대회

2011 · 창립 총회
·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허가 (환경부 제398호)
· 대도학회 창립
· 중국 하얼빈 지부 창립
· 서울지부 창립
· 가수회 창립
· 확근회 창립
· 대구지부 창립

2012 · 글로벌코리아 창립
· 대자연사랑 청년단 창립
· 새마음회 창립
· 정가회 창립
· 대자연사랑청년단 캠프
· 뉴욕지부 창립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승인 (환경부 제 158호)
· 대자연사랑출발한마당대회
· 통일회 창립
· 자연의 숨결 I 음반 제작·발매

2013 · 대자연사랑청년단 캠프
·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기획재정부)
· 경기지부 창립
· 대한민국지키기운동대회 공동주최

2014 · 대자연사랑 청년단 캠프
· 대자연사랑 한마음대회
· 전북지부 창립
· 부산지부 창립
· 자연의 숨결 II 음반 제작·발매
· 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 개최 (대구 EXCO)
· 경북식품박람회 채식요리경연대회 주관
· 경남지부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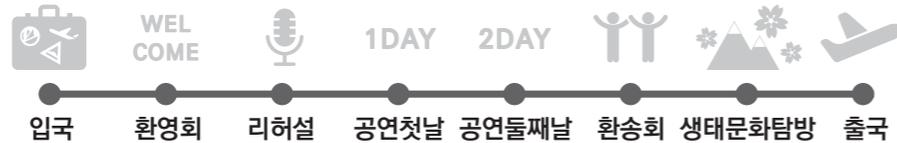
2015 ·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 대자연사랑콘서트
· 대자연사랑 학술 강연회
· 대자연 행복체조 보급 (경남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14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 다시보기



무대 위에 오른 각국 참가단

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는 국제대자연사랑실천본부가 2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세계청소년들의 환경문화축제로 2014년 7회를 맞아 8월 2일-3일 양일간 대한민국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16개국, 26개 팀, 약 1,000여명의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참된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보호,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춤과 노래로 보여준 세계 젊은이들의 화합과 우정의 현장을 다시 돌아봅니다.



글. 편집부_김중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시



개막식

- 1 개회사 중인 변정환 이사장
- 2 환영사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
- 3 사회자 양계원, 최희선, 정현덕, 장소연(좌측부터)



공연모습

- 1 국내외 참가단의 공연모습
- 2 국악인 박애리의 축하공연
- 3 축하공연 중인 브라질 팀



대구한의대 타임캡슐 매설식

환송회

- 1 폐막식 후 참가단들 기념촬영 모습
- 2 환송회에서 아쉬움을 나누고 있는 각국 청년들



시상 장면

- 1 시상 중인 변정환 이사장
- 2 수상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3 수상자들과 함께한 국내의 귀빈들



환영합니다.

- 1 환영합니다. (인천공항)
- 2 참가단을 환영하는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
- 3 환영식 무대에서 한껏
- 4 환영만찬 중인 참가단의 모습
- 5 대구 Exco에 도착하고 있는 참가단



리허설 표정

- 1 리허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참가단
- 2 행사장 복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참가단
- 3 리허설 중인 청년들
- 4 파이팅을 외치는 해외 청년들



스텝과 자원봉사자

- 1 공연 심사위원들
- 2 행사장의 자원봉사자들
- 3 축제 자원봉사신청서를 접수중인 스텝들
- 4 공연 촬영장비를 점검 중인 스텝들
- 5 관람객을 안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숙소 스케치

- 1 숙소에서 참가단 청년들과 기념촬영하는 변정환 이사장(우)과 김광수 축제조직위 본부장(좌)
- 2 숙소 식당에서 식사 중인 참가단
- 3 숙소에서 짬 내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 4 숙소를 산책중인 청년들



또 만나요

- 1 해외 참가단의 출국을 돕는 자원봉사자들
- 2 출국 준비 중인 참가단과 스텝
- 3 출국하는 해외참가단



생태 문화 탐방

- 1 대구한의대 한학촌에서 우정을 나눠요
- 2 대구한의대를 견학 중인 참가단
- 3 불국사 생태문화탐방
- 4 생태문화탐방 중 대구스타디움에서
- 5 양동마을을 생태문화탐방
- 6 양동마을을 생태문화탐방





대구지부 이재현 회원의 공연 모습

자연의 소리로 마음을 감싸는

대자연사랑 콘서트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툭툭 떨어지는 빗방울이 우리에게 주는 크고 작은 위안,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들 이지만 바쁜 일상으로 그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가 생명사랑·자연사랑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 바로 문화예술활동입니다. 음악이 들려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귀에 머물고 마음에 머물러 작은 위안을 주었던 대자연사랑콘서트를 소개합니다.

자연이 주는 위안, 녹색멜로디의 향연

“

춤추듯 날아와 산에 앉은
하얀 면사포 구름 사이로
푸른 빛 아롱져 산 곳곳에 걸린
흰 솜사탕 그 모습 참 아름답네.

”

‘산안개’ 가사 중에서

지난 10월 10일 오후 두시, 안산 상록수역 오픈무대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200여명의 시민들과 대자연사랑 회원들이 함께 한 대자연사랑 콘서트 현장입니다. 대자연사랑콘서트는 사람들에게 녹색멜로디로 가득한 자연의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상록수역을 싱그럽게 수놓았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음악을 감상하는가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팸플릿 속 가사들을 음미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악을 듣던 한 시민은 ‘이렇게 야외공간에서 음악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연을 담은 음악이라 그런지 편안하게 귀에 다가오는 것 같다’ 며 대자연사랑 음악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전에 비가 온 뒤라 약간 쌀쌀했던 이날,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회원들은 공연장 한켠에 전통차와 다과코너를 마련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인사말씀 중인 변정환 이사장



대자연회원 박선영



대자연회원 주정현



대자연회원 송용훈



소프라노 정희정



사회자 강철원



행복체조 공연 중인 노현정, 박진순, 권영실 회원(좌측부터)



성악가, 공연기획자 등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참여 돋보여

한편 이 공연에는 자연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에일커뮤니케이션즈의 강철원 대표는 이날 다른 행사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자연사랑콘서트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재치 있는 입담과 진행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공연 전날까지 전화 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쁘셨지만 공연 당일 모든 에너지를 쏟아 무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많은 스탭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멀리 전북 정읍에서 올라오신 소프라노 정희정씨는 '대지 어머니 품에 기대어' 등 두 곡의 대자연노래를 부르면서 대기하는 중간 중간 더 잘하지 못해서 어찌나 하는 아쉬움을 계속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공연장에서 들었던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정작 무대 뒤에서는 이렇게 긴장하셨다고 하니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진심이 전해져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회원들이 꾸미는 무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프로는 아니지만 대자연사랑실천본부에는 자연을 그대로 닮은 목소리로 대자연을 노래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박선영, 이제현, 주정현 회원인데요. 이날 저마다 느끼는 자연을 때론 산소처럼 부드럽게, 때론 폭풍처럼 강렬하게 무대에서 공연해준 대자연회원들 덕분에 공연장은 열기로 꽉 차올랐습니다. 한편 대학생 송용훈 군은 클래식기타연주로 관객들을 차분한 선율의 세계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대자연사랑에는 남녀노소가 없다! 신나는 행복체조공연

이번 콘서트에는 건강체조인 행복체조도 선보였습니다. 대자연사랑 중년회원들의 행복체조팀이 짹짹 시간을 내어 몇 달 간 연습한 실력을 뽐내었습니다. 행복체조는 자연노래를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동작들로 엮어낸 생활체조입니다. 이날의 공연을 위해 약 30여명의 대자연회원들이 뭉쳤는데요, 연습을 하는 동안 친목도 다지고 건강도 쑥쑥, 일석이조였다고 합니다.

대자연사랑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은 잠시나마 음악을 통해 자연이 주는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후원과 참여로 쌓아올린 대자연사랑콘서트

대자연사랑콘서트는 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기지부의 수개월간의 준비과정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인 대자연사랑콘서트가 전국으로 조금씩 확산되어 시민들에게 대자연사랑의 즐거움과 위안을 전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로 정착되어 가도록 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여정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글. 편집부_박선하

음악으로 전하는 자연 힐링

대자연음악



대자연음악을 녹음 중인 대자연사랑 청년단원들



대자연음악을 녹음 중인 대자연사랑 청년단원들



대자연음악 녹음작업을 위해 악보를 검토하고 있는 장철준 성악가



대자연음악을 녹음 중인 이승진 청년



부루나솔리스트앙상블의 대자연음악 공연무대

자연소재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은 가사가 없는 연주곡 위주의 감상 곡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중가요시장에서는 환경콘서트와 같은 특별한 무대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든 장르입니다.

자연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천, 대중음악으로 소통

그러나 대중가요에서 '사랑'이라는 소재만큼이나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소재는 광범위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뗄 수 없는 보편적인 소재입니다. 더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건강한 지구환경을 위해서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대중음악 형태의 '대자연음악'은 사람들에게 쉽고 편하게 이러한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종 문화예술공연과 교육현장을 누비는 대자연음악

'대자연음악'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와 자연이 주는 풍부한 감정들을 담아 노랫말을 만들고 자연만의 순박한 색채가 두드러지는 멜로디를 입혀 완성되는 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순수창작물입니다. 현재 100여곡의 대자연음악이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풀어내는 자연에 대한 감동,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

☞테이크원뮤직 실장 강해구 씨는 '2014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의 음악제작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많은 감정들을 주고 느끼게 해줍니다.

따뜻하고 행복하며 벅찬 감동을 줄 때도 있고, 때론 무섭기도 하고 자연 앞에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들을 음악이 다 표현해 낼 순 없지만 가사나 음률로 비슷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때론 무한한 아이디어들을 선물로 주기도 하구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흘러가게 해주죠. 그런 자연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비슷한 감정들을 전해줄 것이며, 사람들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소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음악

부드러운 음색으로 풍부한 감성을 노래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산시립합창단 단원인 성악가 장철준씨에게 대자연음악은 '다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음악을 다루는데 일반적인 소재는 아니기에 처음 접했을 때 조금은 의아했지만, 멋진 선율에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내용의 가사가 어우러지니 정말 멋진 음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딱히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이듯 대자연의 음악도 우리에게 자연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며 위안과 힐링을 주는 선물이 되도록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대자연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글. 편집부_박선영

자연과 친해져요

대자연 행복체조



행복체조가 만들어지기까지

도심문명으로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자연은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어 접해야 하는 우리와 다른 외부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배낭을 꾸려 삼삼오오 사람들과 주말에 올라가는 산, 2박 3일 일정으로 평소 보지 못하는 드넓은 목초지와 말들을 보러가는 여행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랜만에 '자연'과 함께 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곧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모토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 위한 또 하나의 대자연사랑 이야기, 행복체조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은 어떤 친구일까?

어느 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은 어떤 친구일까?' 손만 대면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 터져 나오는 마술 박스 같은 스마트폰이나 재밌는 동작과 유머로 시시각각 웃음을 주는 개그콘서트처럼 자연이란 친구는 순간적으로 재미를 주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으니 어쩌면 아이들에게 자연은 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친구일 것구나.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재밌고 즐거운, 친하고 싶은 '친구'로 자연을 어떻게 소개해주지? 라는 고민.

그러나 아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교육과 문화에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작고 다소 딱딱했습니다.

산, 바람, 말, 시냇물이 말을 하고 춤을 춰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자연만큼 표정이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감수성을 일깨우는 존재도 없습니다. 바로 이 자연의 표정과 몸짓을 담아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행복체조는 만들어졌습니다. "산은 어떻게?" "높아요." "이렇게?" 동작으로 돌아옵니다. "산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요." 그렇다면 드넓은 가슴으로 껴안는 동작으로 포근함을 돌아옵니다. 행복체조는 이렇게 자연의 표정 하나 하나를 동작에 담아 아이들에게 자연이 말을 거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은 행복체조를 추며 자연과 친해집니다. 행복체조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연과 동화되어가는 놀이문화입니다.

쉬운 동작, 그러나 땀나는 건강체조!

요즘 댄스들은 도전욕구를 자극하는 현란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가득합니다. 한류로 이름을 날리는 한국대중문화에서 댄스파워는 대단하죠. 그렇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춤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TV의 댄스는 따로 연마해야 하는 일종의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행복체조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보면 누구나 따라 출 수 있을 정도로 쉽지만 한두 번 추고 나면 숨차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효과도 큼니다.

춤이면서 체조이기도 한 행복체조는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생활체조입니다.





“몸과 마음이 행복해져서 행복체조인 것 같아요.”



황효정

처음엔 생소했지만 춤을 추게 되면서 먼저 나부터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체조지만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가현

체조는 국민체조 밖에 몰랐는데 행복체조를 접하게 되면서 체조에 대해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행복체조인 것 같아요. 노래도 따라 부르기 쉽고 멜로디와 동작이 자꾸 생각나는 중독성이 있어요. 가요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라 한번 들으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효

행복체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동작에 익숙해지면서 춤을 출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배봉선

행복체조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했지만 '왜 행복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 부터인가 이 노래들을 흥얼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이거 중독이에요~!"라고 즐거워했고 진심으로 재밌어 하는 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조도 운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긴 했지만 할수록 재미있다는 아이들의 말에 '아 그래서 행복체조 이구나!' 또 다시 느꼈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체조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체조 촬영현장 스케치

묘하게 빠져드는 행복체조 '즐겁고 유쾌한' 촬영현장 속으로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되었던 행복체조 촬영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와 대자연사랑 청년캠프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 참가해온 대자연사랑 송도청년단이 행복체조 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배봉선 선생님과 송도청년단의 세 학생들이 참여한 행복체조 촬영영상은 현재 여러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노인대학 등에 다양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로 간 행복체조!



2015년 행복체조가 누빈 현장을 공개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노인대학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급사업과 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 숨가쁘게 달렸던 행복체조의 첫해를 소개합니다.

1. 2015년 4월부터 경남 창원 **소담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교육을 위해 매주 2회 아침활동시간에 전교생이 행복체조를 추고 있습니다. 소담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보통은 아이들이 아침활동시간에 잠을 자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행복체조 영상을 틀어주니 춤을 따라하면서 아이들도 활발해지고 교실 분위기기도 더 밝아진 것 같아요”라며 행복체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해주었습니다.
2. 2015년 9월 21일, 경남 창원의 **대방초등학교** 교사연수회에 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행복체조팀이 초대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 행복체조를 소개해주고 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복체조팀은 선생님들과 한 몸이 되어 행복체조를 추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음악의 분위기가 밝고 가사가 매우 좋다는 의견을 한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서는 행복체조가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을 것 같으니 좀 더 다양한 곡과 춤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3. 2015년 7월, 경남의 **다나유치원** 아이들 100여명은 행복체조 지도교사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박진순 선생님과 함께 두 달간 행복체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어린 눈을 반짝 반짝, 무슨 춤인지 궁금해 하며 선생님의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들과 함께 행복체조를 추었습니다.
4. 2015년 10월, 안산시 **2015 자원봉사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행복체조를 시연한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행복체조 팀의 모습입니다.
5. 2015년 11월, 경기도 안양의 **와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서 두 달간 진행된 '자연을 춤추요'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들의 쉼터이자 돌봄 공간인 센터에서 행복체조팀은 두 달간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행복체조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부족한 점들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글, 편집부_박선하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환경실천운동

글 박종웅

대구한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교수
(사)경상북도환경포럼 이사장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이사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낙동강 유역의 지역적 특성은?

낙동강 유역은 강유역이 크고 행정구역의 한계를 벗어나 통합된 하나의 지리적 단위로서,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독특한 자연공간인 동시에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낙동강 유역은 인구, 산업, 경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행정, 문화, 역사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바로 영남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낙동강은 반변천, 내성천, 영강, 북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황강, 남강, 밀양천, 낙동강 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류들의 합류지점과 영남문화의 거점이 되는 도시들이 위치해 있다. 낙동강 수계는 풍성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지역민의 젖줄이 되고 있어 낙동강 수계를 따라 일찍부터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화로 낙동강 유역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낙동강 본류의 길이는 525km로 한강 514km보다 남한에서 가장 길며, 유역면적은 23,859km²

로서 한강 다음으로 넓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황지연못을 발원지로, 경상북도로 유입되어 남으로 흘러 안동 부근에서 반변천을 비롯한 여러 지류를 합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점촌 부근에서 다시 내성천, 영강을 합하고 남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강은 다시 의성부근에서 위천, 대구 부근에서 금호강을 합하고, 경상남도로 유입된다. 경남에서 황강, 남강을 합하고 남강의 합류지점에서부터 마산, 진해의 산지에 차단되어 바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다가 부산시의 서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낙동강은 상·하류 지역 간에 환경입지 분쟁과 불신에 따른 지역감정이 커져 왔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해 가면서 생활환경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낙동강유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는 기온뿐만 아니라 기후시스템의 물 순환을 변화시키고, 물 순환의 변화는 자연계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인류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수십 년간 관측된 온난화는 지구상의 물 순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기 중의 수증기의 증가, 강수량 패턴 및 강도와 극한의 변화, 적설면적의 감소 및 빙하의 광범위한 용해, 토양수분과 유출량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게 되므로 강수량의 증가와 많은 수증기를 함유한 구름이 갑자기 강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 국지성 집중 호우의 확률이 매우 높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표적인 영향은 강수이다. 기온 상승에 따른 강수 변화는 수자원의 분포를 변화시켜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을 바꿔 놓는다. 현재에 낙동강을 비롯한 많은 강들이 관개 농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의 강수의 감소는 하천수의 감소와 수자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강수의 증가는 빈번한 홍수를 발생하게 하여 많은 손실을 안겨 줄 수 있다. 한편 낙동강은 강수에 의한 공급 구조로서 경사가 가파르고 하천의 길이가 짧은 산지지형의 특성 때문에 수자원의 원수 공급구역이 뚜렷이 구별되나 호우 및 홍수와 가뭄과 같은 극단기상현상(extreme events of meteorological phenomena)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변화는 낙동강의 수자원 가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연재해의 패턴과 규모도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확보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조치의 일환으로 낙동강의 개발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낙동강 개발 및 복원 사업은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 통제 등 다각적인 역할 수행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만 흐르는 강에 보를 설치함으로써 다량의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큰빛이끼벌레의 출현 등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은?

강의 개발 및 복원사업은 강이 깨끗해지고 강 주변에 역사, 문화, 전통이 내포한 스토리가 있으며, 사람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흐르는 강에 보를 설치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동강 유역은 보 설치이후 양과 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되어야 한다.

낙동강사업의 기본방향은 하류의 느린 유속 즉 완만한 하상경사에 의한 홍수배제 곤란 및 제방 안전문제, 댐의 홍수조절능력 부족 및 평상시 유지용수 부족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등 다기능 보 8개를 설치하여 10.2억 m³의 용수와와 6.1억 m³의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였다. 댐 설치로 양적문제는 해소 되었으나 질적인 문제를 비롯한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은 보 설치이후 양과 질 및 생태환경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 구간별 소통 단절과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낙동강은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새로운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재자연화의 회귀를 반복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변화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낙동강은 상·하류간의 소통과 행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와 지역밀착형 시설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둘째, 낙동강은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녹색 경제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다각적인 홍수통제 역할 수행, 유역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 강 주변의 주요 지역개발, 강 주변 문화·여가 공간 개발 등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은 흐르고 있는 자연 유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유량의 사용법이 달라진다. 가령 홍수량을 조절하여 갈수기에 방출하는 방법이나 확보한 수자원을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등 용도별 다각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104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보령댐 저수량의 부족으로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제한급수 등 생활용수 부족의 심각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금강에서 보령댐 도수공사로 1일 11만 5천톤의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함으로써 생활용수 부족 문제는 해소하였으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 단계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생활용수 문제 해소의 배경은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안겨준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낙동강의 경우도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1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해서 697.7 백만 톤이며, 이는 1990년도 총배출량 295.7 백만 톤에 비해 약 136% 증가하였고, 2010년(667.8 백만 톤)보다는 4.5% 증가하였다. 2011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분 중 전력 생산량의 증가와 철강 산업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이 각각 24.2%와 47.0%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감축 없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에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망치(BAU)대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토록 에너지 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과 에너지 공급 구조개선을 통한 석유 의존도 축소의 방안으로 청정 연료,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증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의 총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낙동강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기존에 조성된 수변공간과 제방 주변의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존에 각 보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을 심야 및 주말의 여유 전력을 이용한 양수발전으로 전환하여 전력 생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 수계 8개소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2013년도 기준 연간 163,496MWh로 이는 27,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생산량으로 연간 490억원 수익과 온실가스 73,500tCO₂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낙동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양수식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환경실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세계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회의인 「UN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이 범인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실천주체는 주민 개인이다. 낙동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 하류간의 소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주민대표, 기업대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환경실천 추진협의체로써 「낙동강 의제 21」의 구성과 지속적으로 실천가능한 행동강령을 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실천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회를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행동의 기초를 마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판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실천수단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고는 낙동강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발전(2015, 자연보호)과 낙동강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방안(2015, 첨단환경기술)의 일부 인용 및 추가 보완한 글입니다.



채식약선(藥膳)을 아십니까?

글 : 김미림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이사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 교수
 약선세계화사업단 단장

입춘과 우수를 지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驚蟄)을 맞이하였습니다. 땅속의 씨알들이 따뜻한 기운과 햇살을 만나 감긴 눈을 튀우고 새싹이 되어 바깥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내밉니다. 새싹은 선한 이들의 손길을 따라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마침내 채취되어 산채가 되고 약채가 되어 손맛 좋은 여인네를 만나면 맛갈스런 채식약선(菜食藥膳)으로 탄생합니다.



채식은 환경과 건강과 생명윤리입니다

채식은 어떤 단체에게는 지구를 구하는 운동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식문화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동물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는 윤리적 문제가 됩니다. 입장에 따라서 강조하는 중점이 다르긴 하지만, 채식이라는 작은 생활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동물과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 구성원이 누리게 되는 보상은 어느 한 가지에 편중되지도 않고 그 파급 효과가 결코 작지도 않습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들판에 나뉘는 돌맹이, 흘러가는 시냇물, 하늘가에 떠도는 구름과 온갖 동식물은 물론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까지도 대자연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아우르면서, 각 개체들을 저마다의 실존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어 전체 지구촌을 풍요롭게 하는 유기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공생과 동반자적 입장에 있는 동물을 더 이상 입맛추구의 수단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그들을 또 다른 나로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랑함으로써 인정과 배려 그리고 화해를 통한 전지구적 대화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제 채식은 동물성 식재료를 쓰지 않는, 위축되고 제한된 식사라는 초보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그것이 담고 있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념에 못지않은 맛과 영양과 다양성을 추구하여 인류 식문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약선이 이런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식에 약선(藥膳)의 의미를 더하면 현대판 불로초가 됩니다

나라 다스리는 이치와 양생(養生)의 원리는 같습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사람의 가슴과 배 부위는 궁실(宮室)과 같고 팔다리는 교외(郊外)와 같으며 뼈마디는 온갖 관리와 같다. 신(神:

심장)은 임금과 같고, 혈(血)은 신하와 같으며, 기(氣)는 백성과 같아서 자기 몸을 간수할 줄 알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고 대체로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그 나라가 편안하듯 자기 몸의 기를 아껴 쓰으로써 그 몸을 보존할 수 있다.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듯 기가 마르면 몸도 죽는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듯 망한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어렵다' 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동양의학 고전에서 '약을 쓰기 전에 먼저 음식으로 먹는 식품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그것으로 안 될 때 약을 사용하라' 하여 평생에 걸쳐서 먹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섭생이 만병의 원인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오늘날 채식에 약선의 의미를 더하면 현대의 불로초가 됩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와 대구한의대학교는 채식약선의 선두주자입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한방산업의 선두주자 대구한의대학교와 채식약선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첨단적인 건강음식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경북식품박람회 에서 제 1회 채식요리경연대회를 주관하여 개최 하였습니다. 팀 당 2~3명으로 구성된 30여 팀이 출전하여 약 100여 종류의 채식약선요리를 선보였고 대상(大賞)은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정경애(박사과정)와 설다민(석사과정)이 수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자연사랑실천본부와 대구한의대학교는 지역의 뿌리 깊은 한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의 다양한 산채와 약채 및 곡류를 활용하여 채식약선으로 전국을 선도하고 음식문화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아이টে็ม으로 채식약선을 도입·발전시켜 인류의 심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약선은 무엇일까요?

약선은 '약이 되도록 먹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동양의학적인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식품의 특성을 구분하고 동양의학적인 처방의 원리에 맞도록 배합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유형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장수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약선입니다. 약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식용한약재와 식품을 배합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식품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약선이라 하여 반드시 한약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약선을 적용하기 위한 동양의학적인 기초이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식재들끼리 또는 식재와 약재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동양의학적 측면에서 보는 약재와 식재는 서양에서 말하는 5대 영양소의 배합 비율에 따른 구분과는 달리 사성(四性) 즉, 한량 평온열(寒涼平溫熱)과 오미(五味)인 산고감신함(酸苦甘辛鹹)으로 구분하고, 음식을 만들 때 인체

의 음과 양의 상대적 협조평형과 오행의 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렇게 약선의 재료는 각각의 성질과 맛으로 구분하며, 그 성질과 맛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으로 배합하여, 살아오는 동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섭생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음, 양의 평형을 바로 잡아 주는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의 시절식(時節食)은 채식약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후와 계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해 온 나라로 옛날부터 세시풍습이 발달하였고 세시가 뚜렷한 절후에 따라 많은 명절이 있어 계절에 어울리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세시음식은 절식(節食)과 시식(時食)으로 나뉘는데, 절식은 4계절 자연의 영향을 받고 역사의 변천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의 한 단면으로 다달이 있는 명절에 차려 먹는 음식이고, 시식은 계절에 따라 나는 식재료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우리의 전통 시절식은 채소와 곡류를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약선적 의미를 충분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건강음식에 대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건강식의 채식약선으로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계절에 맞는 채식약선을 지혜롭게 섭취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절식은 채소 및 곡류를 비롯, 수조어육류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채소와 곡류를 활용한 것이 많아 채식으로 만든 한국의 시절식을 찾아보고 그 약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시절 맞춤 음식을 지혜롭게 섭취하여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력 1월인 정월(正月)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 약식과 부럼을 먹었습니다. 묵은나물로 만든 비빔밥은 보중익기(補中益氣)·건비화위(健脾和胃) 작용의 뽕쌀밥에 고�혈압·인후통 및 기관지에 좋은 수리취, 거담해수(祛痰咳嗽)의 부지깅이, 성질이 따듯하여 기혈순환 촉진작용이 있는 곰취, 거담(祛痰)·윤폐(潤肺)작용의 도라지, 해독(解毒)작용의 취나물에 근대에 들어 온증산한(溫中散寒) 작용이 있는 고추장을 넣었고, 약식은 보중익기(補中益氣) 작용과 따듯한 성질의 찹쌀에 익기생진(益氣生津)·보비화위(補脾和胃) 작용이 있는 대추, 보신강건(補腎降健)·활혈(活血) 작용이 있는 밤, 활장(活腸)·윤조(潤燥)작용이 있는 잣, 윤장통변(潤腸通便)작용이 있는 참기름 등을 넣어 만든 음식으로 겨울철 몸을 따듯하게 하였습니

다. 음력 2월은 입춘(立春), 우수(雨水), 경칩(驚蟄)의 절기가 있는 달로 오신반(五辛盤)을 먹었습니다. 3월의 꽃샘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혈(補

血)·활혈(活血)·지통(止痛) 작용의 당귀썩, 소식화담(消食和痰) 작용이 있어 소화에 좋은 무순, 청열이수(淸熱利水)의 미나리썩, 이뇨(利尿)·지혈(止血)의 산갓, 발표(發表)·통양(痛痒)작용의 움파로 만든 음식으로 소열(少熱)작용이 있으므로 환절기 감기예방에 적합한 음식입니다.

음력 3월은 삼진날과 청명한식(淸明寒食)의 절기가 있는 달로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절이므로 진달래꽃으로 지지는 두견화전(杜鵑花煎),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화면(花麵)을 즐겼고, 청명한식(淸明寒食)을 전후하여 썩탕, 썩떡을 해먹었습니다. 화면은 다가올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청열(淸熱)작용의 녹두를 생진(益氣)과 염한(廉寒)작용이 있는 오미자물에 말은 국수요리이며, 진달래 화채는 부인붕루(婦人崩漏)에 효과가 있는 진달래를 오미자물에 띄운 것으로 성질이 따듯하면서 소한(少汗)작용이 있습니다. 애탕국은 성질이 따듯하여 냉복통(冷腹痛)과 부인붕루(婦人崩漏)에 좋은 썩으로 만든 음식으로 약간의 땀을 동반한 발열(發熱)의 작용을 하여 아식은 찬기운이 남은 기후에 몸을 따듯하게 보호합니다.





음력 4월은 입하(立夏), 소만(小滿)의 절기와 사월초파일(佛誕)이 있는 달입니다. 죽순과 씀바귀를 따다 고추장이나 양념에 살짝 문혀 먹었으며 냉이도 많이 먹었고, 사월초파일은 소밥이라 하여 느티나무 열매로 만든 느티떡과 볶은 콩, 썩떡, 미나리강회 등 소찬을 먹었습니다. 썩떡은 보중익기(補中益氣)·건비화위(健脾和胃) 작용이 있는 멧쌀에 냉복통(冷腹痛)과 부인붕루(婦人崩漏)에 좋은 썩으로 만든 음식으로 태한(太汗)작용과 함께 기(氣), 혈(血)의 순환을 좋게 하였습니다.

음력 5월 단옷날에는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씻고 썩 및 앵두로 편(떡)과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제호탕을 만들어 임금께 진상하였는데 제호탕은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며 보신(補腎)하기 위해 마시는 전통청량음료로 오매육(烏梅肉), 사인(砂仁), 초과(草果), 백단향(白檀香)을 가루로 내어 꿀에 재워 증탕으로 달여서 두었다가 냉수에 타서 마셨습니다.

음력 6월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며 유두절(流頭節)이 있는 달입니다. 유두날 절식으로는 보리수단, 편수, 봉선화화전, 감국화전, 맨드라미화전, 밀쌈(연병), 구절판, 깨국탕, 복분자화채, 떡수단, 참외, 상화병(霜花餅, 기주떡) 등이 있습니다. 보리수단은 성질이 서늘하여이뇨통림(利尿痛淋)과 소한(少汗)작용이 있고, 각종 채소와 찬 성질의 메밀을 이용한 메밀밀쌈도 소한(少汗)작용이 있어 기혈을 통하게 하면서 여름더위에 몸속에 쌓이기 쉬운 열을 땀으로 잘 배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음력 7월은 입추(立秋)와 처서(處暑)의 절기와 칠석(七夕)이 있어 가을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아직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달입니다. 칠석(七夕)날에는 밀전병, 증편, 복숭아화채, 오이소배기, 오이깍뚜기 등을 먹었는데 소설(少泄)작용이 있어 여름철 체내의 노폐물을 잘 배출되게 하였습니다.

음력 8월은 백로(白露)와 추분(秋分)의 절기와 추석(秋夕)명절이 있는 달로 햇곡식, 햇과일이 풍성하여 명절 중 가장 풍성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오곡이 풍성하므로 다양한 음식이 시절에 맞게 나오는데 송편, 토란탕, 밤단자, 갇은 나물, 배화채, 대추, 사과, 배, 감 등의 햇과일 등을 먹어 영양소 섭취를 풍성히 하였습니다.

음력 9월은 한로(寒露)와 상강(霜降)의 절기와 중양절(重陽節)이 있는 달입니다. 잘게 썬 배, 유자(柚子), 석류(石榴), 잣 등을 꿀물에 탄 유자화채(花菜)와 감국전, 밤단자, 유자화채, 생실과, 국화전, 국화주, 국화화채 등을 먹었습니다. 삼색단자는 보중익기(補中益氣)·건비지사(健脾止瀉) 작용이 있는 찹쌀에 냉복통(冷腹痛)과 부인붕루(婦人崩漏)에 좋은 썩을 넣은 썩구리단자, 보익(補益)·명목(明目)작용이 있는 석이를 넣은 석이단자, 익기생진(益氣生津) 작용이 있는 대추를 넣은 대추단자인데 삼색단자 모두 열을 발생하고 여기에 소통(小通)작용이 있는 국화차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음력 10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의 절기가 있는 달이다. 음력 10월 상달은 햇곡으로 술을 빚고 시루떡을 만들어 성주신을 맞이하며 빌었고. 절식으로는 물호박떡, 무시루떡, 밤단자, 대추인절미 등의 떡이 있습니다.

음력 11월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과 동지(冬至)의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가을 동안 수확한 곡식이 곳곳에 가득한 농한기입니다. 동지(冬至)는 음(陰)의 기운이 가장 센 날로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만들어 넣어 팔죽을 쑤고 가묘에 천신하고 절식으로는 팔죽, 전약, 식혜, 수정과, 동치미 등이 있습니다. 팔죽은 이수작용이 강한 팔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찹쌀을 넣어 음기가 가장 강한 날에 습해지고 차지기 쉬운 몸을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음력 12월(선달)은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의 절기가 있어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겨울철 음료로 수정과는 한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계피와 생강을 사용하여 찬기운을 몰아내어 풍한(風寒)감기를 이겨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절식 속의 채식은 약선적인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 우리의 조상들이 절기에 따라 지혜롭게 섭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음식의 방향성을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식품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의 먹거리 삶을 되짚어 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음과 동시에 건강을 지킬 방안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생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전통음식에 대한 재조명, 안전하고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성찰 결과로 21세기에 떠오른 화두는 채식, 약선(medicated-diet), 사찰음식, 웰빙푸드(well-being food), 슬로우푸드(slow-food), 로하스(LOHAS)등 자연 지향적이고 안전한 건강먹거리와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식에 대한 관심도의 급격한 증가는 현대의 사망 원인 최상위 순위들이 식생활에 의한 것이며, 오감만족의 식생활 추구에 의한 모양과 맛에 치중한 현대 식생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전 세계적으로 식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 식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채식약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시절식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에너지원이기보다는
예방약품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음식과 허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음식이 에너지원이기보다는 예방약품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의 '약식동원(藥食同源)' 사상에 의하여 구성된 채식약선은 전 세계인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음식문화입니다. 채식이 주(主)가 되는 한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식단으로 평가 받는 지중해식보다 영양균형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여기에 환경 등이 인간 생육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시절식으로 구별하고 통합하여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각 음식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전통을 가미한 채식약선입니다.

**음식문화는 대표적 국가이미지 상품이며
고부가가치 창조의 경제상품입니다**

음식은 해당 사회의 자연적 조건, 생활방식, 역사 등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컬처노믹스(문화와 경제의 결합)의 대표 주자입니다. 대장금 등 '한류'는 한국 식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유발한 바, 관광산업과 연계한 전통음식문화의 건강음식 상품화 전략 또한 필요합니다.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스토리 발굴 및 재구성한 전통음식문화 콘텐츠로 한국전통음식의 우수성을 건강음식으로 제고하고 관광상품화를 위한 채식약선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음식의 문화관광적 접근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국책사업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채식약선은 각 외식업체의 음식 메뉴에, 가정의 식단에 현대의학적, 식품영양학적 가치에 접목할 수 있는 세계인들이 요구하는 건강 식단이며, 또한 이것은 대사성질환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재조명되고 연구되어야 할 하나의 음식 문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채식약선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과 한국의 전통음식이 가장 대표적인 채식약선임을 알리는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한 바, 채식약선을 중심의제로 채택하고 국책사업화 하여 한국을 세계 채식약선의 메카로 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전 세계적 채식약선 시장은 어느 음식산업보다 경제적문화적 가치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존중과 자연사랑을 통해서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대자연사랑실천본부가 단체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면서도 성취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탐색한다면 약선채식이 그 첫 번째 선정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음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채식요리전시경연대회 수상자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변정환 이사장

**제 7 회
경북식품박람회
'채식요리전시경연대회'**

일시 : 2014.9.17 - 2014.9.20
 장소 : 경북 경주시 세계엑스포 전시장
 주최 : 경상북도
 주관 : 사단법인대자연사랑실천본부
 참가팀 : 30팀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변정환 이사장과 대회 관계자들

생명사랑 실천,
지역환경돌봄부터 이웃사랑까지

경기지부

2013년 12월 설립된 (사)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기지부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자연, 환경, 생태와 관련된 봉사지원 외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시와 정부로부터 우수단체로 지정되는 등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경기지부를 취재했습니다.

(사)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기지부 연혁

- 2008.10 '한국대자연사랑운동본부' 경기지부 발대식
12 안산시 안산천 환경정화운동
- 2009.01 안산시 소재 '푸른초장요양원' 목욕봉사 및 문화봉사
04 안산시 '튬올림픽제' 대자연노래 공연
06 안산시 '제4회 자원봉사활동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
12 안산시 '자원봉사상' 수상
- 2010.05 안산시 자원봉사 '왕중왕상' 수상
- 2011.09 캄보디아 및 미얀마 식수지원사업 후원
- 2012 노인급식 봉사
- 2013.05 '사랑의 선교회' 봉사
12 '(사)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기지부' 창립총회
- 2014 네팔 학교건립사업 후원 (엄홍길휴먼재단)
12 안산시 '노란물결합창대회' '나눔상' 수상
- 2015.02 해양수상부장관상 수상
04 네팔 지진 복구사업후원 (엄홍길휴먼재단)
10 대자연사랑콘서트 개최
12 안산시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장려상 수상

경기지부의 큰 기둥, 조기상 지부장을 만나다

“안녕하십니까? 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기지부장 조기상입니다.” 정년퇴직 후 남은 삶을 어떻게 꾸릴까 고민하다 봉사 관련된 일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부장까지 맡게 되었다는 조기상 지부장님은 이번에 경기지부장으로 재선임 되면서 경기지부 운영에 대한 여러 밑그림을 구상 중입니다.

실천은 성실이 중요, 2년간의 꾸준한 실천이 신뢰로 이어져

초창기에는 뜻 있는 지인들이 모여 생명존중, 자연사랑을 실천하자는 의지를 갖고 사업을 모색하던 중. 그 첫 시작이 매주 주말을 이용 안산천에 모여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2년 정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성실성을 인정받아서일까요? 그때부터 시와 관공서도 인정해주고 시정부가 참여하는 여러 프로젝트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신력을 얻음과 동시에 시정부로부터 다수의 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의 수도 증가하고 저희들의 사업도 확장하게 되었죠. 대부분 안산천 생태환경개선, 아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안산천 정화활동

아 저개발국 우물파기와 네팔 학교신축사업, 65세이상의 어르신들 급식봉사, 청소년인성교육과 관련된 행복체조 보급, 자연과 환경을 노래하는 대자연사랑콘서트 등 그 영역과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아시안게임, 희비가 교차하던 한해

여러 사업들이 있었지만 특히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에서 일어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으니까요. 안산 단원고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중 배 침몰로 300명 가까이 희생된 어이없는 사고였죠. 희생된 학생들의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같이 울고 함께 뛰면서 진도와 안산을 수 없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 더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그 해 인천에서 4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에 저희 회원들과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발적인 봉사, 나와 이웃, 그리고 지역을 바꾸는 밑거름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봉사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시와 관공서, 그리고 시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아래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주민이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절실하지요. 특히 소외된 이웃,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 시의 축제와 행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역부족인 부분이 많죠.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행복한 2016년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

2016년 한 해는 모두가 행복한 한 해였으면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 지부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경기지부 조직도 재정비하고 본부와 연계하여 사업과 활동영역도 넓히면서 대부분도 하천정화사업, 저개발국가우물파기와 학교신축사업, 대자연사랑콘서트 등은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말동무의 역할,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돕기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 강창영 (경기지부 사무국장)



2015안산시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장려상을 수상하는 조기상 지부장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조기상 지부장



노인급식 배식봉사 중인 경기지부회원들



다림안심캠페인에 참여한 회원들



안산지역 고등학생들과 함께한 안산천 정화활동

대구지부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동아리

‘자연사랑’

LOVE
NATURAL
ENVIRONMENT



자연사랑!

평소 남을 돕는 것과 환경문제에 관심 많았던 친구들이 모여 시작된 ‘자연사랑’ 동아리가 만들어진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학교 안팎에 학생들의 힘이 필요한 일들이라면 적극 참여하며 유쾌한 대학생들의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이어져 작년 12월 대구한의대학교 사회봉사우수활동 최우수동아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연사랑’의 총무 청은진양과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이동민군을 만나 그동안의 ‘자연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연사랑’은 무엇인가요?

자연사랑! 생활 속에서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때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보다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 환경이슈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사랑 동아리에서는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위해 대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자연사랑! 대학생은 ‘관심’을 가장 가져야 할 연령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생인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해결 방안을 생각해 실천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면 환경과 관련된 조직, 기구나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을 받아서라도 앞장서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던 일들이 사회에 나가, 다시 사회인이 된 우리가 대학생들을 도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의 불꽃이 주변 사람들, 지역사회, 나라, 세계까지 전해질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자연사랑’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자연사랑! 활동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직접 활동함으로써 환경, 사회문제 등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구체화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타 단체나 대학생 동아리와 연계하여 활동하면서 평소에 잘 몰랐던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연사랑 동아리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소개해주세요

자연사랑!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회봉사(양로원, 고아원, 장애인시설)를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는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자연보호활동, 환경정화활동, 국제교류활동과 같이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65나 VMS와 같은 봉사 관련 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봉사만을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봉사활동을 접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 무엇보다 재미를 중시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활동,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통역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정 고령보 수증정화활동 중인 동아리원들



대구지부와 함께 한 사랑의 연탄나눔



청솔노인복지센터 어르신 가을나들이 봉사



칠성동 환경정화 활동



2015년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들은 무엇인가요?

자연사랑! 첫번째로 2015 달성 토마토 축제를 뽑을 수 있는데요. 많은 학우들과 함께 이를 동안 행사 지원 봉사를 하였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가 축제 분위기여서 봉사하는 내내 즐거웠기에 지금도 학우들과 그때의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 하곤 해요. 두 번째로는 '강정 · 고령보 수중정화활동'이 있습니다. 대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드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환경정화 활동과 수중정화활동을 같이 하였는데, 평소에 하기 힘든 새로운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봉사활동이어서 많은 분들이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쁩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보람찬 활동으로 기억에 남아요.



동아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연사랑! 신생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인원이 많아 회원들 간에 일정을 서로 맞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이라 학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씩 쪼개어 모두가 봉사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다양한 전공의 회원들이 모여 있어서 저희 자연사랑이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동아리가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웃음)



올해 '자연사랑' 활동계획 중 주력할 부분이나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연사랑! 지난 학기에 정말 꼭 하고 싶어 계획했던 활동이 있었는데, 학교의 관련 부서들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했던 '게릴라 가드닝'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게릴라 가드닝 : 계획되지 않은 채 환경정화가 필요한 곳에 꽃을 심거나 화분을 배치하는 활동) 새로운 형태의 환경보호활동이기에 사람들의 흥미,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해보고 싶은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자연사랑실천본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연사랑! 본부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있다면 자연사랑 동아리에 꼭 그 소식을 알려주어 참여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학기에는 좀 더 나아진 자연사랑이 되도록 임원진과 회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사랑 동아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 주요활동

- 03월 24일 자연사랑 창립
- 04월 17일 제7회 세계 물포럼 참관
- 04월 25일 지구의 날 행사 참관
- 05월 15일 달성 RED 토마토축제 행사보조
- 05월 29일 제2회 실크로드 국제학생축제 행사보조
- 08월 22일 남해 하계 환경정화활동
- 09월 05일 칠성동 환경정화활동
- 09월 07일 대구한의대학교 정식 동아리 승인
- 09월 13일 강정 고령보 수중정화활동
- 09월 16일 대구 서구 환경정화활동 및 교통안전 캠페인
- 10월 02일 청솔노인복지센터 어르신 가을 나들이
- 10월 03일 붓으로 그리는 생명 행사보조
- 10월 10일 마을 RPG 행사 진행 보조
- 10월 31일 무주 덕유산&독일가문비 나무숲 추계 환경정화활동
- 11월 03일 캠퍼스 클린 운동
- 12월 05일 사랑의 연탄나눔
- 12월 24일 온맵시 캠페인
- 12월 28일 대구한의대 2015학년도 자기주도형 사회봉사 프로그램 우수활동 최우수동아리상 수상



달성 RED 토마토축제에서



대구지부와 함께 한 무주 덕유산&독일 가문비 나무숲 추계 환경정화활동



대구지부와 함께 한 남해자연탐방

취재, 편집부_박선하



‘더불어 함께 만드는 좋은 공동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 유해 외래식물 제거활동



장영숙 센터장

Q 취임 1년을 돌아본 소감을 나눠주세요

2015년 1월에 취임했으니 벌써 일 년이 되었네요. 세월이 우수와 같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희망마을 확대, 청소년이 안전한 안산을 위한 청소년 지원 사업, 다문화 및 외국인이 많은 우리 안산시의 특성을 특화하기 위한 다문화이주노동자가 시민으로 함께하는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지난 2015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Q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배경과 센터의 비전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에는 두레나 향약, 또는 계와 같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6·25전쟁이후 외국의 원조와 물자지원, 그리고 전쟁고아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원으로 자원봉사가 시작됐으며 주로 복지의 보충적 역할을 해오며 성장했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정부의 자원봉사진흥정책에 따라 1998년 설립 되었습니다. 작년에 취임하여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등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향후 5년간을 추진기간으로 하여 ‘시민의 힘으로 변화하는 안산공동체’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비전추진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전문플랫폼’과 ‘나를 위해 10분 성찰하기, 마을을 위해 10분 생각하기, 그리고 한 달에 1회 이상 마을을 위해 생각한 것을 실천하기’를 미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Q 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기지부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여러 사업과 봉사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단체에 대한 그 동안의 느낌과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기지부는 저희 센터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은 물론이고 특히, 조기상지부장님은 저희 센터의 직원보다 더 열심히 센터의 사업에 협업자로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출근카드를 만들어 드려야 하겠다고 농담할 정도로 두 손을 걸어 부치시고 봉사활동에 앞장서 주십니다. ‘늘푸른광장’이라는 무료급식프로그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실뿐만 아니라 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 모든 부분에서 굳은 일, 힘든 일 가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기지부회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기상지부장님의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활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말씀은 제게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Q 봉사센터는 각종 환경, 문화단체와 연계하면서 많은 활동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봉사자님들께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라며 찾아주시는 곳이지요. 다른 어떠한 기관과도 비유할 수 없는 배려와 나눔의 긍정에너지가 그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체와 자원봉사자는 각각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발견되는 인상적인 것은 긍정의 힘입니다. 어려운 점은 예산의 한도 및 직원의 수가 제한적인데 사업이 많고 다양한 자원봉사자님을 만나야 하다 보니 봉사활동을 하신 후에 충분한 지지 및 지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아쉽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Q 2016년 봉사센터의 주요사업을 소개해주세요

2015년에 수립한 비전을 목표로 단계적 확장을 해나가려 합니다. 사실 센터의 예산은 3년째 동결되었으나 단체와 동아리 지원을 위해 올해부

터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사업비와 ‘소요물품 지원 사업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공유공간인 ‘나들목 카페’가 활성화 되어 봉사자들의 놀이터로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실험공간으로 재미있게 운영되어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없는 동아리와 단체를 위해 준비한 자원봉사업무공간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Q 앞으로 대자연사랑실천본부에 기대하는 역할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이 저희와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협력자로 주인공으로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자연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환경사랑활동을 앞장서서 두벽두벽 묵묵히 실천해 나가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활동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상 지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이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취재_강창영 (경기지부 사무국장)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웃음꽃 사람, 심화숙 회원의 자연을 담은 '다도봉사'

사람과의 만남에서 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는 대화의 촉매 역할을 하고, 바쁜 숨을 고르게 하며 지친 일상에서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차 문화, 다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다도는 '자연을 담은 삶'이라는 심화숙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마음을 깨우는 자연을 담은 차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의 역할 외에 사람에게 의롭게 하며, 사색의 공간을 넓혀주어 마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차 한 잔의 멋 속에 삶의 도리와 풍류도 녹아있는 것이지요. 또한 보건의료로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큼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차를 많이 마시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에는 단순히 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양을 갖고 있는 '다식'과 자연을 가져다 놓은 꽃은 '다화'라 하여 인위적으로 키운 꽃이 아니라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이용하여 차 속에 자연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선비들이 모인 자리에는 시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있고 그 자리에 차가 꼭 들어있었습니다. 향도라 하여 침향을 피우기도 하며, 단순한 음료가 아닌 정서적으로도 마음을 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차의 예절과 느낌의 미학은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어

세계 3대 음료는 차와 커피 코코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4가지로 탄산음료 까지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음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커피와 차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폴리페놀'이라

'웃음꽃 사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은 우리 역시 미소 짓게 만듭니다.

는 항산화물질이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저하시키며 건강에 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가 대중들에게 음료로서 간편하고 쉽게 다가가는 반면에 차는 예절과 느낌의 미학을 통해 급하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게 하며 정서를 건강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차를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껴요

대자연 사랑실천본부 회원으로서 자원봉사를 시작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직장을 다녀야 하고 그동안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보니 봉사활동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 봉사 한 곳은 오산에 있는 남부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은빛 하늘채 노인 복지관에서 차 치료를 시작으로 봉사하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낯설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기쁜 일이었어요. 순수한 기쁨 같은 거죠. 보수를 바라거나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의 배움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도 느꼈어요.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과 장애아동들을 만나면서 차를 나누고, 차훈 명상을 통해 행복한 삶의 에너지를 느끼고, 나또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 또한 차를 공부한 보람이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열심히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과정을 준비하는 심화숙 회원

전 안양사람이고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고 뿌리 거든요. 나눔의 실천에 안양을 빼놓을 수 없었죠. 예전에 사회복지사 실습을 청계동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차와 예절을 강의해주면서 아이들의 밝아지는 마음을 보게 되었거든요. 와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도수업을 진행했어요.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면서 청소년들의 밝은 마음을 이끌어 주었어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짧게 마친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수업은 재미있고 좋았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구요. 다만 좀 전문적인 지도랄까? 청소년들과 어울림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지금은 청소년 지도사 공부도 하고 있어요.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춘기도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 시기이므로 간섭이 아닌 여러 사람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만의 그런 아픔과 상처도 있거든요. 제가 배운 다도와 공부가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해요.

봉사를 통해 만난 천사처럼 예쁜 아이들

봉사활동의 에피소드라고 하면 장애아동들을 만날 때였어요. 처음엔 좀 두렵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일까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나 천사처럼 맑고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선입견이 이렇게 더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에게 다도수업을 한 적 있는데, 다들 처음 접해보는 다도 수업이었어요. 호기심과 관심으로 저를 대하니 만나는 분 들마다 보람 있고 행복했죠. 차는 대접받는 느낌을 들게 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취재. 강창영 (경기지부 사무국장)



국회의사당 광장_팔도차문화대회



와청소년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다도수업



청계동 주민센터 다도수업



지부소식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경기지부 청년단은 사랑의 선교회에서 침실 정리정돈과 청소, 할머니들의 식사 돕기, 발일과 쌀 배달 등의 봉사를 매월 1회 진행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바다 살리기 운동과 진도 팽목항 세월호참사현장 봉사활동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경기지부가 2월 16일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구의대 대학생 동아리 '자연사랑' 창립식

지난 3월 10일 대구한의대 학생들이 구성된 환경봉사 동아리 '자연사랑' 창립행사가 열렸다. 약 7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 하였으며 변귀남 교수가 지도교수로 추대되었다.



안산천 생태하천 가꾸기

경기지부는 안산천에서 매달 1회 정기적인 하천 주변 쓰레기 줍기와,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외래 유해식물을 비롯한 각종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 고등학생들과 함께 한 안산천 정화활동

지난 8월 7일 안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경기지부 및 여러 지역 환경단체들이 지역 고등학생 160명과 함께 안산천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남해자연탐방

대구지부는 회원들과 함께 하는 자연탐방과 환경정화활동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 남해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초 창립된 대구한의대 '자연사랑' 동아리가 함께 하였다.



경남지부, 시낭송 문화 행사 후원

10월 8일, 대구한의대와 시다락낭송예술원 주최, 대자연사랑실천본부 경남지부 후원으로 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에서 시낭송회 '사랑, 가을에 물들다'가 열렸다



노년기 구강관리 및 행복체조 시연회

10월 25일 경원중학교 부설 경원방송통신중학교 강당에서 이우근 경남지부장이 노년기 구강관리에 대한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으며 경기지부 행복체조팀은 참가자들에게 행복체조를 시연하였다.



무주 덕유산 자연탐방과 환경봉사

11월 3일, 쌀쌀한 날씨 속에 70여명의 대구지부회원과 대구한의대 대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이 무주 덕유산을 찾았다. 설천산 정산에서 항적봉까지 2km 구간을 무주군청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협조 아래 등산로 청소를 하였다.



대자연사랑 학술 강연회

11월 8일 부산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부산지부 회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자연사랑 학술 강연회가 열렸다. 부산지부의 초청으로 변정환 이사장은 '대자연과 건강'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2015 안산시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장려상 수상

12월 5일, 경기지부는 1년 동안 안산천 정화활동을 비롯한 환경교육등의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인정받아 2015 안산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자연사랑동아리 2015 DHL 자기주도형 사회봉사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

12월 28일 대구지부의 자연사랑 대학생 동아리가 대구한의대 2015학년도 자기주도형 사회봉사프로그램 우수활동 동아리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대구지부에서 지난 12월 28일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생 동아리인 '자연사랑'이 함께 참가하였다.



인물동정



변정환 이사장 대구한의대 명사초청특강

변정환 이사장은 4월 22일 대구한의대 교양교육원 바이오센터에서 재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대자연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대구지부 정인권 회원, 베지닥터 3대 회장 취임

지난 5월 대구지부의 정인권 회원이 베지닥터 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정인권 박사는 고신대 의대 내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울산 새아침연합내과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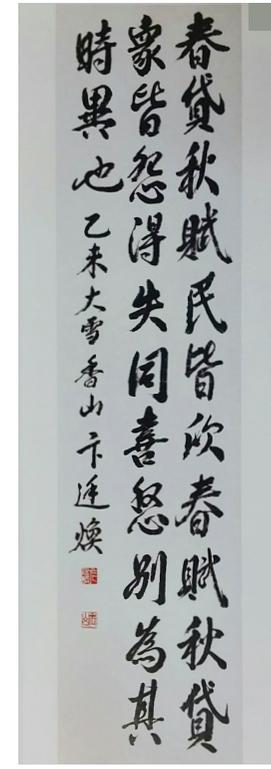
염현주 교수 '제13회 전국국악대전 종합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구지부의 염현주 교수는 6월 7일 '제13회 전국 국악대전 종합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염현주 교수는 2014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변정환 이사장 '2015국제건강 포럼 및 박람회' 기조강연

10월 13일, 변정환 이사장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5국제건강 포럼 및 박람회'에서 '대자연과 건강'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였다.



변정환 이사장 '제8회 대한민국새하얀 미술대전' 대상수상

변정환 이사장은 대한민국 새하얀포럼(이사장 박동우)이 주최한 '제8회 대한민국새하얀미술대전'에서 '회남자(淮南子) 시(시실은 같은듯하지만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를 출품하여 서예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자연사랑, 함께 만들어요!



1. 대자연사랑을 아름답게 디자인 해주실 재능기부자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포토샵, 일러스트, 동영상 편집, ppt 등
모집인원: 0명
지원방법: inlakorea@daum.net 으로 간단한 본인소개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자원봉사점수인정과 경력증명을 지원해드립니다.



2. 대자연사랑잡지 청년리포터 모집

모집분야: 취재, 촬영, 글
모집인원: 지부별 0명
지원방법: inlakorea@daum.net 으로 간단한 본인소개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자원봉사점수인정과 경력증명을 지원해드립니다.



3. 직접 촬영하신 아름다운 자연사진을 보내주세요.

풍경, 동물, 식물 사진이나 그 밖의 환경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보내신 분 이름과 함께 본지에 게재됩니다.
보내실 곳: inlakorea@daum.net

“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후원계좌 안내

신한은행 100-031-315439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후원문의 E. inlakorea@daum.net T. 02-732-1359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기부금공제혜택을 위해 우편/팩스/이메일 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주)다소니여행사는 '대자연사랑'과 함께 합니다

다소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임직원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국내여행업무	해외여행업무	하나투어 전판점 운영	행사 기획 운영	관광버스 운영
당일여행, 숙박여행, 기차여행 등 국내외 명소의 관광업무	비자발급대행, 항공권 판매, 호텔 판매, 기획 여행상품 판매, 패스 판매	하나투어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등 모든 상품의 판매를 대행	EXPO, 축제 등 국내,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	45인승, 25인승 전세버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18, 502호(오금동, 대진빌딩) 전화: 02-400-1828 팩스: 02-407-1828
대표: 천원섭 연락처: 010-9345-8520

창간호 워크샵 현장

2016년 1월 9일과 10일, 1박 2일에 걸쳐
실시된 대자연사랑 창간호 워크샵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대자연사랑 화이팅!



편집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



회의자료를 검토 중인 편집위원들



워크샵에서도
남자요리사가 대세



이광조 편집위원장과(좌) 강창영 편집위원(우)



열띤 토론 중인 이언경, 김중문,
박선하 편집위원 (좌측부터)



대구한의대학교 영덕 연수원

대구한의대학교 영덕연수원에 모인 편집위원들

지난 1월 9일, 쌀쌀한 날씨 속에 대구한의대학교 영덕연수원으로 편집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대구팀은 뒤에 도착하는 경기·서울팀을 위해 미리 회의실을 세팅해놓고 반갑게 맞이 해주었습니다.



토론 중인 김광수, 변귀남 편집위원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열띤 토론

대자연사랑실천본부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잡지인 만큼 편집회의는 뜨거운 열정과 토론으로 밤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무처에서 만들어온 기본 밑그림을 토대로 우리 단체가 표방하고 싶은 그림들,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 여러 편집위원들의 알찬 아이디어들이 오갔습니다. 잡지 명칭에 대해 '대자연'과 '대자연사랑' 간의 투표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편집회의 안팎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자연사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편집위원들을 격려 중인 변정환 이사장

워크샵을 찾은 변정환 이사장

늦은 저녁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변정환 이사장님께서 편집위원들을 격려차 방문하셨는데, 잡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편집위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갈 길을 재촉하시는 이사장님과 편집위원들은 '대자연사랑 파이팅!'을 외치며 아쉬움의 여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채식으로 만들어진 저녁 테이블

채식 반찬으로 이루어진 맛있는 밥

이번 워크샵에서는 쿡방의 트렌드를 반영이라도 하듯 남자 편집위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요리부터 뒷정리까지 주방을 전담하였습니다. 1박 2일 끼니마다 채식으로 이루어진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신 김광수, 김중문, 강창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장 이광조 편집위원 김광수 편집위원 변귀남 편집위원 김중문 편집위원 천원섭 편집위원 박선하 편집위원 박선영 편집위원 이승수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두 달여 만에 '대자연사랑' 창간호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대자연사랑'을 채워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잡지제작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일동
2016년 2월 28일

아보 행복빵

현미와 한약재로 바르게 만든 건강한 자연발효빵

현미와 울무, 다양한 한약재로 구워낸 행복빵은 밀가루, 우유, 계란, 유지, 흰설탕,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 재료를 발효시켜 만들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자연발효 빵입니다. 행복빵은 대구한의대학교 명예총장 변정환 박사님이 고안한 한방 건강빵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36-1(봉산동) 빵 빵 한 빵
053.423.0010



open

HAPPY BAKERY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36-1(봉산동)



미래비전 선포식
2016. 1. 26(화) 18:00 경산시청 대회의실

경기도, 미래비전 선포식-비즈니스센터-특화단지 조성
국내 최대 수출기차 육상-37km-5개업체 참여에서 제1

흥남신문
수출 10억\$ 일자리 3,500개 "경산은 K뷰티 화장품산업 메카"

경기도, 미래비전 선포식-비즈니스센터-특화단지 조성
국내 최대 수출기차 육상-37km-5개업체 참여에서 제1

대구일보
경산 새터거리 '화장품산업' 5만평 규모 특화단지 조성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09면 중산, 사업부서상

화장품산업을 선도할 특화된 인재양성
대구한의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산·학·연·관 협력

2017년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구축

2020년 화장품 효능 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18년 경산 R&D특구 내 5만평 규모의 코스메틱 특화 산업단지 조성

영남일보
경산, 화장품 생산 허브로 부상

글로벌 기업 수산생활-터미널부터 연구개발-생산-유통까지 제1 연구개발 1차 건물에 입주

산업이플 전문인재 양성 'K뷰티'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11면 14면

- 2025년까지 생산액 5조원, 10억불 수출
- 연구 + 생산 + 비즈니스, 3,500명 일자리 창출
- 70개 글로벌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
- 글로벌기업과의 채용 약정형 교육 실시
- 해외유학생 유치, 해외화장품 종사자 재교육

대구한의대학교 취업률 72.8%
대구·경북지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2014.12.31. 기준, 졸업생 1,000명 이상 사립대학)

전국 대학 취업률 5위
(2014.12.31. 기준, '다' 그룹 졸업생 1,000명~2,000명)

GREEN FLASH

그린 플래시

Color Of Nature

녹색섬광, 자연의 아름다운 빛

그린 플래시는 해가 뜨거나 질 무렵 해의 위쪽 테두리에 몇 초 동안 보이는 녹색의 빛을 의미 합니다. 자연을 담은 컬러로 모든이에게 영감을 주는 컬러입니다.



사단법인대자연사랑실천본부

The International Nature Loving Association Korea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A동 1805호

전 화 02-732-1359

팩 스 02-732-1357

이메일 inlakorea@daum.net

홈페이지 <http://the-inla.or.kr>



콩잉크와 재생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